한가위 미사 강론(2019년 9월 8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추석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좀 빨리 찾아와서, 가을 느낌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추석은 한자어로 ‘중추절’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큰 명절로 지내왔던 날입니다.

이때는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고, 또 한해 동안 지은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양반이나 상민이나, 머슴이나 모두 이날 만큼은 새옷 차려입고,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끼리 가족끼리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생겼던 거죠. 한가위가 국가 명절로 정식으로 제정된 것이 삼국시대 초기였다고 하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한국의 명절은 생각만 해도 참 풍요롭고 따뜻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 때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가족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존재감과 유대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 있는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살자고 다짐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살아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국의 제사의 정신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우리가 성당에서 드리는 성찬의 전례입니다. 미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인간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이 미사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나눔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서로가 참으로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척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상처주고 마음 상하는 말을 서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살다 보면, 한 가족이라도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도 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니까, 서로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용서하고, 서로 달래주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공동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신앙 공동체이니까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에 울립니다. 어떤 농부 이야기죠. 열심이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둔 부자 농부입니다. 이 부자 농부에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자 농부는 크게 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고생한 댓가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농부를 예수님은 단죄하십니다. 그 농부의 잘못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 밖에 몰랐던 거죠.

이 농부의 말을 들어보세요.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많은 수확을 거둔 것은 이 농부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하느님의 축복을 잊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자기 생각만 하고 나눌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또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눌 줄 모르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느님 눈에 ‘어리석은 사람’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 보물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눈 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적인 재물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 노력, 희생 등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면, 그것이 덕을 쌓는 길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어느덧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고, 9월 입니다. 세월이 아주 빠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에 영적인 보물을 쌓을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눌 때 삶은 더 풍성해 집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처럼, 늘 마음 따뜻하게, 가진 것을 나누고, 나누어서 행복한 신앙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